

살미첨자의 바깥머리는 初・二諸工이 모두 쇠서로 깎여졌는데 仰舌에 가까운 모습을 갖고 있으나 대단히 얇과하게 깎았다. 그러나 線은 날카롭다. 外目道里를 받는 공포 材는 雲工形狀으로 되어 있다. 살미첨차의 안쪽 부분은 하나로 모두어져 梁捧이 되어 퇴량을 받도록 하였다. 퇴량 이상의 部分은 近來 天井을 만들어 놓아 原形을 살필 수 없으나 樣式으로 보아 연등천정이었음을 알 수 있겠다.

여기서 注意를 환기할 것은 귀공포 부분이다. 흔히 柱心包의 境遇는 맛배지붕의 形式이나 이 建物은 팔작지붕이므로 추녀를 받기 위하여 왕피를 짚야 하였고 또 그것을 받을 공포가 필요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집은 架構는 柱心包系이면서 공포를 多包系로 하여 맛배지붕을 結構하도록 한 開心寺 大雄殿과는 反對가 되는 것으로 注目할 만한 折衷方式인 것이다. 이 건물의 價値는 여기에 集中된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니겠다.

概略을 살펴본 셈이다. 이 建物의 結構方法이나 공포의 양식은 周圍의 系譜에서 얻어진 것처럼 보인다. 羅州一帶의 建物에서는 이러한 手法로 建築되어진 것들을 屢屢히 發見할 수 있다. 특히 공포는 羅州 學校大成殿과 一脈相通하고 있어 注目된다.

本建物 前方의 八脚門도 同時에 建築된 것인 듯한데 이 門의 手法를 羅州 學校의 中門과 比較하면 비록 그 建築되어진 目的과 時期는 달라 異狀을 徵하였으나 거의 同一한 것이라고 하여서 좋을만한 것이다.

結論하자면 이 地域에서 같은 時期에 지어진 建物中 錦城館은 建築史上 上반드시 學論되어야 할만한 것이다.

보통들 이 집을 客舍였다고 하는 모양이나 客舍는 따로 碧梧軒이 있었고 이 錦城館은 銀杏亭 남쪽에 特使 李有仁이 지은 집이다. 後에 建物과 名稱이 混沌되었는지는 後考를 기다릴 밖에 없다. 이 建物은 十五, 六世紀에 지었다고 推定된다.

金景漢 白磁墓誌

鄭 良 謨

근자에 李洪根氏 所藏品中에서 金公의 墓誌를 調査할 수 있는 機會를 얻어 여기 紹介해 두고자 한다. 이 金公은 바로 前號에 紹介한 墓誌의 主人 金公在仁의 曾祖父로서 그의 父 汝鍵은 官이 修撰에 이르렀으나 金公은 出任치 아니하였다.

이 墓誌는 金公의 卒年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金公의 六世孫과 七世孫이 燔造하여 後에 奉安한 것으로 아마 先代의 墓를 移葬하고 봉한 것 같다. 이 墓誌는 二重으로 되었으며 위에 뚜껑이 달려 있는 특이한 構造로 되어서 뚜껑은 직경 一七cm의 圓形으로 扁平한데 緣部에서부터 조금씩 경사져 올라가다가 中心部에서 직경約三cm로 切斷되었다. 刻 墓誌

